

양동복개사가 '전국 1등 시장'

시설·경영 현대화로 30% 매출 신장 '우수시장박람회' 최우수 시장 선정

광주 양동복개사(주)(대표이사 정대규)가 '2006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됐다. 시설과 경영 현대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빈 점포를 모두 채우고 매출도 30% 올리면서 '1등 시장'으로 거듭난 것이다.

광주시는 양동복개사가 19일부 터 중소기업청 주최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2006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전국 1천660개 중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양동복개사가 최우수 시장에 선정된 것은 지난 2000년부터 거세진 대형유통점의 공세에 맞서 자구 노력을 하면서,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복개사 상인들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케이드 설치, 점포 리모델링, 화장실 개보수, 주차장 진입로 개설 등 14개 시설 현대화사업에 63억원을 투입해 고객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상가 앞에 늘어선 지

저분한 상인들 스스로 치웠고, 모든 공사를 전가공개입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해 상인들간 불화의 씨앗을 미리 차단했다.

상인들은 복개사가 회의실에 2개 과정의 상인대학도 개설해 스스로 의식을 바꾸면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 판매 등 경영기법도 배웠다.

점포 소유주들도 임대료를 30%까지 인하해 상인들과 상생의 길을 텅텅 다. 그 결과 361개 점포 가운데 20%에 달하던 빈 점포도 모두 채워져 활기 넘치는 시장이 됐다.

광주시, 광주재래시장연합회 등과 함께 10억원 규모의 재래시장 공동상 품권을 발매해, 6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복개사는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매출액이 30% 가까이 오르는 등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

양동복개사가 정대규 대표이사는 "상가가 활성화 된 이후 강원도 재래시장상인연합회를 비롯해 경남, 경북, 전북 등의 재래시장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 오는 상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양동의 성공사례는 전국 재래시장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자랑했다.

한편, 전국 우수시장박람회에는 서울커피(양동복개사), 무등도요(송정매일시장), 황금농원(무등시장), 무등상회(말바우시장), 연수당(송정시장), 광동상회(송정시장), 해풍상회(양동시장), 황금농어(무등시장), 강진집합(대인시장 등) 등 광주시내 7개 시장 9개 점포가 참가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시교육감 선거 후보 4명이 18일 오후 광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출마 소견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현·안순일·윤봉근·윤영월 후보.

“광주교육 내가 책임” 4인4색 공약

광주시 교육감 후보 소견발표

오는 23일 치러질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이 18일 광주시 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소견발표회에서 각각 광주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창현 후보(기호 1번)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학부모에게 통지하겠다”며 ▲영재교육원 4곳 개설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 확대·개편 및 국립 국제고등학교 설립 ▲광주교육의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감사관제 도입 ▲1천300억원에 달하는 시교육청 빚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순일 후보(기호 2번)는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정된 학교에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실력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질 높은 공교육 제공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논술지도 실시 ▲진학지도 유공 교원과 연구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설·납품 관리 심의 위원회 구성 등을 내놓았다.

윤봉근 후보(기호 3번)는 “교직원 활과 교육위원회 의장, 각종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자산으로, 광주교육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공교육 정상화 역점 ▲구별로 학부모와의 대화 정례회 ▲학생 건강 체크 및 양질의 급식 제공 ▲민간에 실질적인 예산·결산 심의와 감사권한 부여 등을 약속했다.

윤영월 후보(기호 4번)는 “광주에서 한국 최초의 여자교육감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교육계의 신선한 충격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 속의 글로벌 인재 육성 ▲매년 국제 교류 장학생을 선발해 세계 유수 학

우수 건축·건설 자재 다 모였다

오늘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하우징엑스포' 개막

전국 우수 건축 및 건설 관련 자재들을 모아 전시하는 '2006 광주하우징엑스포(GEHOS 2006)'가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4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생활을 편리하게 공간을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이번 전시회는 건축자재와 전원주택, 인테리어 기자재, 조경, 건설장비, 디지털 홈 분야 등 120여 개 업체가 7천여 점 이상의 제품을 전시한다.

교 과전 ▲글로벌 교육용 교실 환경 조성 ▲체벌·폭력 없는 학교 조성 등을 내놓았다.

/황태기자 hwangtae@kwangju.co.kr



옛 광주중앙교회에 설치된 '제 3회 광주 총장로축제- 추억의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1970년~1980년대를 재현한 총장로 거리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마차타고 마술쇼 보며 B-boy 댄스 즐기세요

광주총장로축제 3대 볼거리

18일 개막한 '제 3회 광주 총장로 축제', 3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금남로와 총장로 곳곳에 마련돼 있지만 모두 참여하기는 불가능하다. '놓치면 후회할 법한' 프로그램 3가지를 소개한다.

◇추억의 마차체험=축제 기간 동안 마차를 타고 영화 속 주인공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18일~22일 낮새간 오전 10시~밤 10시 예술의 거리와 총장로 5가 일대에는 쌍두마차 4대(4~6인승)가 준비돼 있다. '제일마차제작소'가 운영하는 마차는 ▲옛 광주중앙교회~총장로 4가~광주일보 빌딩~금남로 5가 ▲옛 상무관~금남로~중앙로 등 2개 구간을 각각 운행한다. 소요 시간은 10분~15분, 요금은 무료다. 마차에 타면 70~80년대 가요와 팝송도 감상할 수 있다.

◇마술·카테일 쇼=마술쇼는 어린이들을, 카테일

쇼는 10~20대 청년층을 겨냥하고 있다. 'J매직'과 'MS매직' 공연단은 축제 기간 오후 금남근린공원과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수시로 마술쇼를 벌인다. 비둘기·장미·마술봉·카드·손수건 등을 이용한 간단한 마술이지만,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하다.

카테일 쇼는 밤 9시와 밤 10시 금남근린공원과 예술의 거리에서 각각 30분 동안 진행된다. '피터팬'의 바텐더 2명이 신명난 음악에 몸을 흔들며 '플래어'(Flair·병을 돌리는 기술) 등의 화려한 기술을 선보인다.

◇B-boy 공연='브레이크 댄서'(Break Dancer)들의 공연도 축제 기간 내내 지속된다. '광주 B-boy 연합회'가 주관하는 '전국 B-boy 댄스 경연대회'가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30분 동안 옛 전남도청 앞 특별무대에서 열린다.

또 19일~22일 저녁 8시30분~9시 밀리오레 앞 무대에서는 '얼라이브' '비트플레이스' '뉴런' 등의 브레이크 댄스팀이 공연한다.

/임주형기자 jhlhim@kwangju.co.kr

“150억 경제 효과... 총장로 상권 되살릴 것”

유태명 동구청장



“올해 총장로 축제는 15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장로의 번영은 구(舊) 도심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 3회 광주 총장로 축제”를 주관한 유태명(사진) 광주시 동구청장은 축제가 쇠락해가는 총장로 상권을 되살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축제를 계기로 한층해진 총장로에 시민들이 다시 모여들면 과거의 영화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청장은 “18일부터 22일까지 축제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시민만 3만3천명

제 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따로 마련, 구청장실 대신 매일 출근하며 축제 준비를 지휘했다.

유 청장은 “동구가 번영했던 시절을 몸소 체험한 7080세대와 2030세대를 교류·소통하게 하는 것이 축제의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총장로 축제가 10회를 넘고 아시아 문화전당이 완공되면, 총장로 축제는 세계가 알아주는 대표적인 도심축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 청장은 “많은 시민들이 총장로 축제에 나와 함께 즐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임주형기자 jhlhi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해양관광
빛의 도시
목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